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연구* - 정화수의 시를 중심으로

하 상 일**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정화수의 시세계 |
| II. 재일조선인 조직의 변화와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정화수의 시세계를 연구한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조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정화수의 시세계를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정화수 시인은 2000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의 변화를 주도한 시인으로,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2-A00130)

** 동의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그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종소리>는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혁신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민단>과 <총련>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이념적 대리전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이나 생활 보다는 남북한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정치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들의 생활과 민족운동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총련>계 재일조선인 문학예술 운동은 북한과의 조직적인 연대 위에서 혁명적 문예전통과 주체적 사실주의창작방법론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활동은 『문학예술』, 『겨레문학』, 『종소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학예술』은 <문예동>의 이념과 정체성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실천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로, 김일성의 교시를 토대로 <총련>의 이념적 지향성과 <문예동>의 창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활동의 지침서이자 대표적인 발표 지면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문학예술』의 휴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겨레문학』과 『종소리』를 통해 이어나갔는데, 특히 『종소리』의 창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전까지 재일조선인 시문학의 발전과정은 재일조선인 사회운동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공화국 창건 이후 <총련>이 결성되기 이전까지의 시기(1948년 9월~1955년 4월)이고, 둘째는 <총련> 결성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창작의 기치를 드높이던 시기(1955년 5월~1973년)이며, 셋째는 재일조선인들의 조국방문을 시작으로 사상예술성의 강화가 이루어진 시기(1974년~1990년대)이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시문학의 흐름에서 『종소리』의 창간은 넷째 시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즉 시 창작에 있어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

소리』의 출현은 <총련>계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화수의 시세계는 1980년 북한에서 출간한 시집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에 수록된 시편들과 2000년 이후 『종소리』에 발표한 시편들 사이에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서는 수령 형상 창조와 조국(북한)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작품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종소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사실상 전무하고 근원적 고향의식에 바탕을 둔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제일조선인의 생활상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그의 시세계의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총련>계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개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제일조선인, 총련, 허남기, 강순, 김시종, 남시우, 정화수, 정화흙, 김학렬, 김운, 종소리, 문학예술, 겨레문학

I. 머리말

제일 디아스포라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근대의 상처 안에서 파생된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경술국치 이후 100년의 역사는 고스란히 제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겹쳐지는데, 식민지, 해방, 분단으로 이어진 우리 역사의 격변에 따른 한일 관계의 변화는 제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해방 이후 분단 현실의 고착화는 남과 북의 단절뿐만 아니라 제일조선인 사회의 이원화마저 가속화함으로써 제

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이념적 대립의 중심에서 북한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하고 고무 찬양하는 일관된 노선을 추구해 왔다. 특히 1959년 <총련> 산하 문학예술조직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동>)을 결성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일본 안의 북한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전면화 함으로써, <총련>의 문학적 정체성은 북한의 정치적 노선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념적 경직성은 그동안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서 <총련>의 문학 작품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즉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반공주의 정책을 국가 이념으로 표방했던 남한 사회에서 북한문학의 아류로 평가되는 <총련>의 문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금기의 영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가 대체로 일본문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일본문학 내의 소수자문학의 한 양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총련>의 문학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가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 등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했거나 수상 후보에 올랐던 일본어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문학 전공자들에게 “재일 동포문학이란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일본어로 쓴 문학”¹⁾에 한정된 영역이었으므로,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창작된 <총련>계 재일조선인 문학작품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이념적으로든 언어적

1) 이한창, 「머리말」,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 제이앤씨, 2008, 1쪽.

으로든 한쪽으로 치우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탈민족적이고 초국가적인 문제들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전지구적 담론들이 급부상하는 지금,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관점 역시 특정 국가나 민족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언어와 이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경직된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총련>의 문학 역시 이념적, 언어적 제약을 넘어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중요한 한 양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특정 민족과 국가의 범주 안에서가 아닌 재일조선인들 그 자체의 역사 안에서 체계화 하고 의미화 하려는 객관적인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조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정화수의 시세계를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정화수 시인은 1935년 부산 기장 출생으로 조선대학교 어문학부 논문과를 졸업했고, 도쿄조선학교 중급부 교원을 하다가 1961년부터 1983년까지 <조선신보사> 기자, 부국장을 지냈으며, <총련> 산하 문학예술조직인 <문예동>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2000년 결성된 <중소리시인회>의 대표를 맡아 시전문지 『중소리』의 발행과 편집을 책임지면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시집으로 북한에서 출간된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문예출판사, 1980)가 있다. 생전에 『중소리』에 수록된 시를 모아서 자신의 고향 남한에서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겠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결국 이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2009년 12월 동경에서 타계하였다.²⁾ 본고에서는 그의

시집과 『중소리』에 발표된 시 전편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II. 재일조선인 조직의 변화와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사는 1882년 조선 정부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 유학생들의 문학 활동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³⁾ 실제로 식민지 시기 우리 문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어 글쓰기를 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관점은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일본에 정착하며 살았다기보다는 공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체류를 했던 것이므로, 이들에게 디아스포라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협의적 개념(Diaspora)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떠남을 강요당한 세계 여러 민족의 구성원들을 두루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diaspora)⁴⁾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시기 이들의 문학 활동에

2) 이 논문을 작성하는 중에 <중소리시인회> 오홍십 시인으로부터 정화수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 지인을 통해 국내에서 발간되었고, 그의 시비(詩碑)도 고향에 세워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은 『쑤은 쑤국이요』이고, 부산의 <삼아>라는 출판사에서 2010년 8월 20일 발간되었다.

3) 이한창, 「재일 동포문학의 역사와 그 연구 현황」, 앞의 책, 8-9쪽.

4) 대문자의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본래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사전상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소문자 보통명사(diaspora)로 사용

서 디아스포라 의식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이들의 일본행은 대부분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의식이 형성될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 우리 문인들의 일본어 문학 활동은 한일 간의 근대적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디아스포라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사는 해방 이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약 200만 명에 달하던 재일조선인 가운데 140만 명 정도만이 귀국하고 대략 6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잔류했는데, 이들 재일 1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재일조선인 사회를 형성한 디아스포라적 주체들이다.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선택하지 못한 채 식민의 땅에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현실은 재일조선인들의 내면에 디아스포라 의식이 각인되는 역사적 상황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공동전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연맹중앙위원회>(1945. 9.)를 시작으로 <재일본조선인연맹>(1945. 10. 이하 <조련>),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6. 10. 이하 <민단>), <재일조선문화단체연합회>(1947. 2.),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1947. 3.), <재일본조선문학회>(1948. 1.),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1951. 1. 이하 <민전>) 등을 잇달아 결성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 <조련>은 재일조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초당파적인 조직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며 민족과 세력을 총퇴진시킴으로써 좌파의 장악 아래 출발하였다. 그리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13쪽.

고 1946년 10월 <조련>이 신탁통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조련>의 대항 조직으로 결성된 것이 바로 <민단>이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련>은 북한을 <민단>은 남한을 지지하였는데, 이때부터 재일조선인 사회는 <조련>과 <민단>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련>은 일본정부와 민족교육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하다가 급기야는 한신(限神)교육투쟁⁵⁾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이유로 미군정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따라서 <조련>에 속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공산당 산하기관인 <민전>에 가담하였다가, 1955년 북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총련>을 결성하여 조직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는 <민단>과 <총련>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이념적 대리전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이나 생활보다는 남북한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정치조직으로 점점 변질되어 갔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들의 생활과 민족운동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총련>은 강령 4항에서 “우리는 재일동포 자제들에게 모

5)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의 다수는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협화회>에 의한 황민화 교육을 받고 강요된 일본어밖에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전국 600개소에 달하는 국어강습소를 만들어, 약 6만 명의 자식들이 공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하여 ‘공산주의 온상’이라는 이유를 붙여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948년 1월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문부성 학교 교육국장 이름의 통지를 내려 재일조선인의 자주교육을 부정했다. 이에 반발하여 재일조선인들은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당시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오사카, 고베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육운동이 바로 한신교육투쟁이다. 그 결과 1949년 10월 조선인학교폐쇄령이 내려져 재일조선인 학생들은 일본학교로 전학하거나 배움을 중단하는 사태를 겪고 말았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 민족교육위원회, 신준수·이봉숙 옮김,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118-123쪽 참조.

국어와 글로써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성인들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노예사상과 봉건적 유습을 타파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하였다.⁶⁾ 이는 재일조선인들의 문학예술 창작과 민족교육 운동의 구체적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총련>계 재일조선인 문학예술 운동은 북한과의 조직적인 연대 위에서 혁명적 문예전통과 주체적 사실주의창작방법론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때부터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본어 창작을 버리고 우리말 창작으로 공식적인 전환을 하였으며, <문예동>의 창작 지침에 따라 조직에 복무하는 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이념적 양상을 전면화하였다.⁷⁾ 이처럼 해방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재일조선인 조직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이념과 실천적 방안은 재일조선인이 주체가 되어 발간한 신문과 잡지 등의 창간⁸⁾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매체의 확대는 재일조선인

6)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 시문학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21-22쪽.

7) <문예동>의 초대위원장은 허남기 시인이다. 그는 문예동 결성 이후 일본어 시 창작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말 시 창작으로 전환하였고, 그의 시세계 역시 식민지의 상처와 고통을 이어나가는 재일의 실존적 상황을 담아내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친북 성향의 이념적 경직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허남기의 변화는 <총련>의 지도노선에 따른 목적문학을 이끌어 나가는 <문예동> 위원장이라는 중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은 <문예동>의 지침에 충실한 시 창작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허남기 연구」, 『비평문학』 3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12, 369-391쪽 참조.

8) 1946년 당시 전국지와 지방지를 합해 재일조선인들이 주축이 되어 발행한 신문은 무려 170종에 달했다. (『해방 5년, 동포신문 사정 - ⑤ 170종의 재일동포신문』, 『조선신보』 2006년 4월 11일.) 그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조련>에서 발간한 『민중신문』(1946. 8.)→『우리신문』→『해방신문』(1946. 9.)→『조선민보』(1957. 1.)→『조선신보』(1961. 1) 등이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문예지는 『고려문예』인데, 1945년 11월 27일 창간호를 냈고, 4호(1946.1.15.)까지 한 달에 두 번 간행되었다. 『조선시』(1946.3.1.)는 발행인 이희석, 편집인 김원성을 중심으로 창간된 시 전문 잡지이고, 『조련문화』(1946.4.5.)는 <조련>의 기관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활동은 『문학예술』, 『겨레문학』, 『중소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학예술』은 1960년 1월 창간되어 1999년 6월까지 <문예동>의 이념과 정체성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실천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이다. 김일성의 교시를 토대로 <총련>의 이념적 지향성과 <문예동>의 창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활동의 지침서이자 대표적인 발표 지면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문학예술』은 1999년 109호를 끝으로 휴간함으로써 <문예동>의 문학적 노선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예감하게 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문예동>의 창작 방향은 <총련>의 지도노선에 종속된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여 변화된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자기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문예동> 결성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문학예술』의 휴간은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중대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⁹⁾

지로 창간되었으며, 『우리문학』(1948.8.1)은 이은직을 발행인으로 <재일본조선문학회>에서 창간한 잡지이다. 그리고 『민주조선』은 1946년 4월부터 1950년 7월까지 통권 33호에 이르는 일본어 종합지이고, 『조선문예』는 『민주조선』이 14호를 간행하고 15호를 준비하던 무렵인 1947년 10월 창간된 종합문예지로 박삼문이 발행·편집을 맡고, 김달수, 이은직, 허남기, 강순 등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조선』은 1946년 창간되어 잠시 휴간되었다가 1947년 9월 복간된 잡지로, 『민주조선』, 『조선문예』가 대체로 좌파적 성향의 잡지였다면, 『자유조선』은 이와 정반대로 우파적 성향의 잡지였다고 할 수 있다.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2, 79-103쪽 참조.

- 9) 『문학예술』 마지막 호의 기획특집으로 마련된 <문예동이 걸어온 자랑스런 40년>이란 좌담회를 통해 이러한 변화와 균열의 지점을 엿볼 수 있다. 이 좌담회에서는 <문예동> 산하 각 예술분야의 원로들이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예술 활동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문예동>의 방향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히 주목된다. 특히 “동포들 속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문학예술』의 휴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겨레문학』과 『중소리』를 통해 이어나갔다. 『겨레문학』은 2000년 5월 여름호를 창간호로 2002년 8월 제7호까지 발간하고 중단된 잡지로, 『문학예술』에 이어 <문예동>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다만 『문학예술』의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젊은 문필가들에게 발언하는 마당을 제공”¹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문학예술』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학예술』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단명하고 말았다.¹¹⁾

2000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중소리』¹²⁾의 창간이다. 2000년 이전까지 재일조선인

군중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서 문학예술이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두말할 바 없습시다. 지난 시기의 정확한 총화와 현실분석에 기초하여 21세기를 지향해 나가야 하지만 새 시대는 새세대의 역할을 더 크게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새세대의 감각과 요구를 깊이 파악하지 않고서는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리동일의 말에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예술 활동 내부의 커다란 인식의 변화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 좌담회에 참여한 분야별 토론자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희영(사회, 문예동 사무국장), 김학렬(문예동 부위원장 겸 문학부장), 최진욱(음악부장), 리동일(미술부장), 현계광(무용부장), 리영식(영화부장), 김광성(서예부장), 강영세(조선문예사 부사장). 『문학예술』 109호, 문예동중앙상임위원회, 1999. 6. 29. 22-34쪽.

- 10) 「진실한 재일동포상의 창조를 위하여 - 《겨레문학》을 내면서 -」, 『겨레문학』 창간호, 2000. 5. 2쪽.
- 11) 『겨레문학』은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작품을 게재하였고, 재일 조선인 문학사를 정리하는 두 가지 기획물(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시문학 연구」, 1호~4호. 려운산, 『재일조선인연극운동일지』, 5~6호.)을 연재하였으며, 매호 ‘신인작품’ 란을 두어 여러 명의 신인들의 시와 단편소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2000년 이후 세계 정치 질서의 흐름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총련>의 문학 창작 방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겨레문학』을 통해 『문학예술』의 시대와는 다른 재일조선인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상일,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4. 172쪽.

시문학의 발전과정은 재일조선인 사회운동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공화국 창건 이후 <총련>이 결성되기 이전까지의 시기(1948년 9월~1955년 4월)이고, 둘째는 <총련> 결성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창작의 기치를 드높이던 시기(1955년 5월~1973년)이며, 셋째는 재일조선인들의 조국방문을 시작으로 사상예술성의 강화가 이루어진 시기(1974년~1990년대)이다.¹³⁾ 이러한 재일조선인 시문학의 흐름에서 『중소리』의 창간은 넷째 시기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격한 변화의 지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시 창작에 있어서 사상성을 강조했던 이전의 경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소리』의 출현은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중소리』를 중심으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변화를 중

12) 『중소리』는 2000년 1월 창간되어 2010년 여름호까지 총 43호가 발간되었다. 1호부터 40호까지는 정화수 시인이 대표를 맡아 『중소리』의 편집 및 발행 전반을 책임졌고, 2009년 12월 정화수 시인의 타계로 2010년 신년호(41호)부터는 정화흠 시인이 대표로 잡지 및 동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중소리』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김응교의 「재일조선인 조선어 시전문지 <중소리>연구」(『현대문학의 연구』 3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2. 237-276쪽.)와 하상일의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 - 『중소리』를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4. 171-192쪽)가 있다.

13) 손지원, 앞의 책, 17쪽.

14) 이러한 관점에서 김학렬은 2000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창작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문학의 사상은 서정화된 사상이지 결코 개인적 논리의 그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념과 논리의 전개는 사회과학의 방법이지 문학예술에서는 금물이다. 시문학의 방법의 기본은 개념과 논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연도 포함)과 표상에 의거하는 것이다. 즉 개념적 설명은 비예술성의 주요 요인이 된다. 시의 사상 감정은 시인의 직설적인 주장에서보다 주로 작품에 표현된 생활적인 표상이 자아낸 정감(서정)에 기초하여 비로소 독자들에게 감명 깊게 감동적으로 전달되는 법이다.” 「절절한 방향의 정감, 세련된 시적 형상 - 정화흠 시집 『민들레꽃』을 두고, 『중소리』 제4호, 2000년 10월, 47쪽.

심에서 이끌었던 시인이 바로 정화수이다. 1980년 북한에서 출간된 그의 시집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에 수록된 시편들과 2000년 이후 『종소리』에 발표된 그의 시편들 사이에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서는 수령 형상 창조와 조국(북한)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작품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종소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사실상 전무하고 근원적 고향의식에 바탕을 둔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재일조선인의 생활상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대부분이다.¹⁵⁾ 본고에서는 이러한 그의 시세계의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개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정화수의 시세계

1. 수령 형상 창조와 조국(북한)에 대한 찬양

정화수의 시집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창작한 작품을 모은 것으로, <수령님의 안녕은 온 겨레의 념원>, <어머니조국이여>, <이겼다, 조선>, <공화국공민>, <귀국의 배길이여>, <너희들의 마당으로>, <아들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폭풍은 인다>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와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15) 필자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일본 동경에 있는 정화수 시인의 집을 방문하여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주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는 2000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북한문학의 일방적 통제와 영향을 벗어나 시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종소리』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즉 지금까지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이 보여 왔던 이념적 경직성을 벗어나 서정시의 본령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종소리』에 수록된 시 작품 전반에 걸쳐 아주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집중되는데, “인민의 영원한 아버지수령 김일성 원수님!/수령님의 안녕은/온 겨레의 간절한 념원이오며/수령님의 만수무강은/온 인류의 행복이옵니다”(「수령님의 안녕은 온 겨레의 념원」)에서 처럼 공화국 해외공민으로서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를 목표로 한 수령 형상 창조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찾아다니며 따라다니며 안겨주는/어머니조국이여!”(「어머니조국이여」) 에서처럼 김일성과 동일시되는 사회주의 조국 북한에 대한 찬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70년대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천리마시대와 주체시대의 북한문학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을 사회주의적 이상향으로 선전선동하려는 시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를 목적으로 한 수령 형상 창조는 송가 문학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주의조국을 찬양하고자 했던 북한문학의 지도노선¹⁶⁾과 이를 충실히 따르고자 했던 <문예동>의 창작 방향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총련회관 높은 집에 찾아올 때면/언제나 숭엄하게 안겨오는 그 모습/
만경대의 추녀났은 마음의 고향집//사위에 온갖 꽃이 다 피여도/조국땅
에 산악같은 짐채들이 솟아올라도/언제나 나직이 앉은 그 모습/수령님
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그때의 추녀났은 그 초가집//초가집의 력사
가 있었기에/오늘의 우리 집들/하늘을 찌르며 솟아나거니/우리의 피가
흘러 스민 이 땅에//괴나리보짐에 설음을 담아지고/류랑의 거리를 헤맬
때는/지친몸 맞아줄 방 한칸이 없었더라/낮에는 낮이 없는 천길지하에

16) 김일성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도덕적 권위의 화신이자 진리의 전유자로 찬양하는 송가를 만들어낸 것은, 정치권력이나 권력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한 일부 시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들을 질곡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적 존재를 기다려온 민중들의 소박한 꿈과 상상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송가는 김일성을 새 역사의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슬하계 좌절되어 온 민중들의 꿈이 바야흐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오성호, 「북한시의 형성과 전개 - 송가, 서사시, 서정시를 중심으로」, 『북한시의 사적 전개과정』, 경진, 2010, 218-219쪽.

몰리우고/밤에는 통나무목침에 노그라졌거니//만경대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오늘의 조국을 생각할수 있어라/구름을 뚫고 솟아난 집채들이 /초가집에 뿌리박고 뺨어났더라/전야를 달려가는 기계군단도/농쟁기에 깃든 그 념원 담아 달리는가//곳곳에 쏟아지는 비단의 폭포도/실물레, 배틀의 구슬픈 노래 씻어흐르고/집집마다 소복소복 넘치는 뒤주에/돌절구, 향아리의 념원을 담았더라//조선의 모든 가난, 고역을 다 겪으며/찌그러진 독에다 장을 담던 초가집/많은 식구 비좁은 방에/찾아오는 혁명가마다 때식을 마련하며/송고한 애국의 념을 키워온/그 사랑, 그 정성, 그 념원이/오늘의 사회주의대가정을 펼치었나니//5천년 유구한 인민의 력사에/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새시대의 렬명을 가져다준/혁명의 요람, 유서깊은 만경대의 초가집//총련회관 높은 집 찾아올 때마다/잇을 수 없어라/일본땅 곳곳에/하늘을 찌르며 솟아오른 총련의 집들/어디서 즐기찬 뿌리를 이어온것인가를//총련회관 높은 집을 찾아올 때마다/내 언제나 엄숙히 다지고 다지노라/만경대의 고향집 모습 심장에 새겨/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영원히 지켜가리라

- 「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 전문

인용시는 “일본땅 곳곳에/하늘을 찌르며 솟아오른 총련의 집들/어디서 즐기찬 뿌리를 이어온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총련>계 제일조선인과 사회주의조국 북한의 역사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총련>계 제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근원이 “만경대 초가집의 력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본땅에서 살아가는 공화국 해외공민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이어나가는 <총련>계 제일조선인의 자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만경대의 고향집 모습 심장에 새겨/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영원히 지켜가리라”고 굳게 다짐한다. 특히 화자의 시선은 “만경대의 추녀낫은 마음의 고향집”, “조국땅에 산악같은 집채들이 솟아올라도/언제나 나직이 앉은 그 모습”과 같은 표현을 통해, 민중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낮은 자세로 세상을 감싸 안는 김일성이라는 절대적 신념을 내면화하는 데 집중한다. 즉 식민지 근대의 상처와 제국주의의

홍포에 맞서 민족과 민중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김일성, “5천년 유구한 인민의 력사에/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새시대의 려명을 가져다준/혁명의 요람”으로서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령 형상 창조는 “어머니조국”의 형상으로 비유되면서 김일성과 재일조선인의 관계는 육친 간의 사랑으로 이어진 무조건적인 관계로 신비화된다. 이는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찬양이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세계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조국이여/그대의 품에 안기여/꿈같은 나날을 보내건만/그대의 품 얼마나 넓고/그대의 사랑 얼마나 뜨거운지/아직도 저희들은 헤아릴길 없습니다//해외에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그처럼 꽃물결 이루어 맞아주고/뜨거운 눈물로 껴안아주며/저희들의 자그마한 일도/그대의 자랑처럼 기뻐해줍니까//(중략)//아, 조국이여!/산천의 아름다움은 금수강산이라 하지만/그대의 류다른 사랑은/무슨 말과 노래로 표현하겠습니까/부모의 심정을 다 아는 자식이 없건만/그대의 품, 넓이와 그대의 사랑, 뜨거움은/더욱 헤아릴길 없습니다//조국이여!/자애로운 어머니조국이여!/저희들의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그대의 자장가와 그대의 숨결속에서/그대의 아들딸로 자라왔거니/그대, 세기를 주름잡아 내닫는 오늘의 숨결을/어찌 저희들이 간직하지 못하겠습니까//어제도 오늘도/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사회주의대가정 그대의 품에서/저희들은 가슴깊이 새깁니다/이제 다시/저 검은 구름이 무거운곳으로 가게 되지만/그대 위해 싸워갈 혁명의 초소/더욱 튼튼히 다져가리라고/가슴깊이 새깁니다/그대 분렬의 고통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 더욱 높이 추켜들고/아버이수령님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충성해가리라고.

- 「어머니조국이여」 중에서

화자와 조국의 관계를 자식과 어머니의 만남으로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을 향한 열정과 감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어머니조국”은 김일성의 다른 명명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래서 화자는 조국을 “그대”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대의 품 얼마나 넓고/그대의

사랑 얼마나 뜨거운지/아직도 저희들은 헤아릴길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혁명과 투쟁이라는 남성성의 세계를 자연의 조화로움과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라는 여성성의 세계로 치환시킴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대중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정서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들의 조국 지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선전성동의 목적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조국이자 곧 아버지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이라는 사상적 알맹이를 쥐고 해외에서 느끼는 조국에 대한 서정적 주인공의 감정을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훌륭히 펴나”¹⁷⁾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시문학은 자유로운 개인의 내면과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인민을 계도하는 직접적 계몽성을 실현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지도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인민을 ‘교양’하려는 목적의식 아래 시를 창작했기 때문에, 북한의 시문학은 전언(傳言) 중심의 평이한 서술적 어조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¹⁸⁾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역시 이와 같은 북한문학의 창작 지침을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재일조선인들에게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해외공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은 김일성과 조국(북한)을 수난의 역사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적 존재와 같은 낭만적 동경과 절대적 신비화의 대상으로 내면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김일성과 조국은 현실적 삶 속의 실체가 아니라 현실의 결핍을 위무하고 채워주는 심리적 보상 기제로서, 이에 대한 찬양과 동경은 논리적 인식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심정적 차원의 절대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¹⁹⁾

17) 손지원, 앞의 책, 97-98쪽.

18) 오성호, 앞의 글, 208-209쪽.

19) 홍용희,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시의 특성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4. 493쪽.

2. <총련>의 귀국 사업과 민족교육에 대한 신념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천리마운동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가 사실상 확립되면서 가장 안정적인 시대를 구가했다.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재일조선인의 지위와 처우에 무관심했던 남한과는 달리, 재일조선인을 해외국민으로 규정하고 교육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재일조선인 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 즉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반공의 틀에 갇혀 자신들을 좌경시하며 철저히 외면하는 남한보다는 조선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앞장서는 등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을 적극 지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은 취직과 취학, 차별 없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하며 재일조선인들의 북한으로의 귀국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재일조선인들 가운데 상다수가 북한이 아닌 남한 출신이었으므로 선뜻 북한을 조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북한은 1955년 9월 김일성이 직접 ‘재일동포 귀국희망자 승낙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들의 귀국 문제, 교육원조금 승낙 문제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일조선인들의 귀국 사업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력을 다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은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명목 하에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북한 귀국을 허용하였고, 1959년 12월 니카타항에서 제1차 북조선귀환선이 출발하게 되었다.²⁰⁾

20) 이후 1984년까지 약 93,000명의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의 귀국을 선택하였다. 연도별 귀국자 통계를 보면, 1959년 2,942명, 1960년 49,036명, 1961년 22,801명, 1962년 3,495명 등 1960년대까지는 매년 2천명 내외의 동포들이 귀국사업에 동참했으나, 1977년에는 귀국자가 180명에 불과할 정도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귀국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일한국인백년사』(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박성태서태순 역, 제이앤

노래가 환호되고/환호가 노래되고/꽃뭉음파도우에 넘치는 노래/노래
속에 터지는 만세와 환호//하늘 땅 바다로 올려퍼진다/《위대한 수령 김
일성원수님 만세!》/《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고조되는 노래속에, 터지는 환호속에/꽃속을 누벼온 귀국동포
들/귀국선 타랍을 밟고 오른다/조국의 대지에 첫발을 내딛는듯/한발자
국 한발자국 감격에 북받쳐/기발만 세차게 흔들며 오른다//절절한 념원
을 어깨띠마다 새겨매고/건고 또 걸으며 찾아온 배길이었다/남의 땅에
끌려온 그때로부터/칼부림, 채찍질속을 헤매던 기나긴 걸음/이 선창에
남기는/마지막발자국에 끝장을 맺고/사회주의 내 나라로 첫발을 내딛는
다//꽃물결 세계 일어라/오색테프 배우로 높이 날아올라라/설음받던 이
국살이 영원히 벗어나/락원으로 가는 길에 무지개를 걸어라/노래여, 환
호여, 부두를 넘쳐라//항일의 수십만리길우에/오늘의 락원이 그려져있었
고/오늘의 배길도 시작되고있었으니/흩어져나간 겨레들을 다 찾으시기
전에는/한순도 못잇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그 사랑, 그 은혜,
온 세상에 전해야 하리

- 「다시 열린 귀국의 길」 중에서

귀국선에 오른 재일조선인들의 감격과 흥분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북한으로의 귀국은 “고조되는 노래
속에, 터지는 환호속에/꽃속을 누벼온 귀국동포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
듯이, 가난과 차별로 얼룩진 식민의 땅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
내 나라로 첫발을 내딛는”희망의 순간이었다.²¹⁾ 이러한 북한의 귀국 사

씨, 2010), 216-222쪽 참조.

21)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위기를 윤건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내 기
역으로 볼 때 당시 공화국으로의 귀국은 기쁜 일, 격려해야 할 일, 꿈이 있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다수의 사람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사회 전체가
좌익에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으며, 일본사회당이나 일본공산당 그리고 일
조협회(日朝協會) 등 각종 단체는 총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재일사회 전체
가 ‘반미’, ‘반키시(岸)정권’, ‘반이승만’이었으며 동시에 “김일성원수 만세”였다고
말해도 좋다. 차별적인 사회인 일본을 포기하고 전채산을 가지고 귀국하는 일은
일생의 일대 전기는 되어도 결코 모험도 도박도 더구나 악몽도 아니었다. 1962
년에 상영되었던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 주연의 영화 ‘큐폴라가 있는 거

업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치안의 대상이었던 구식민지 출신자들을 합법적으로 국외 추방시키는 실익을 얻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재일조선인들의 복송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의 절대적 우위가 결정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우려할 만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은 이러한 점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여 복송정책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북한의 노동력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다. <총련>은 이러한 북한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문예동>을 중심으로 귀국 사업을 선전선동하는 창작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귀국 사업과 병행하여 <총련>이 주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민족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총련>은 1956년 ‘학교 규정’을 정하여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적 방침을 마련하였고, 1957년부터는 북한의 교육 원조를 받아 다방면에 걸친 민족교육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조선대학교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머물렀던 민족교육의 체계를 비로소 완성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총련>을 중심으로 활동한 재일조선인들은 조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아가면서도 민족의 뿌리만큼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민족교육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선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의 심화는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의 확립과 민족적 주체를 정립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

리」에 이 집단귀국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정경은 많은 사람이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장면이었다.”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 창비, 2009, 197-198쪽.

력이었던 것이다.

우리 학교 운동장/새로 지은 교실에/한창 뛰놀며 공부하는 아이들아/
오늘은 또 무엇을 배웠느냐//몸들은 얼마나 더 컸고/빨간 입술들은/또
어떤 우리 노래 부르게 되었느냐//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어린시절 그 고
생/뚝뚝히 배웠느냐//그리고 너희들의 이 학교를/누가 또 뺏으려드는가
도 뚝뚝히 알았느냐//오늘도 아버지, 어머니들은/찬바람 세찬 거리로 나
섰단다/이 마당, 이 교실 지키기 위해/귀여운 너희들을 돌볼 겨를도 없
이/삽과 팽이밖에 못줘여본 아버지들이/수만장 뼈라를 중일토록 뿌리시
고/갓난애기 업고나선 어머니들도/바람받이 골목길을 바쁘게 다니신다
//너희들의 가슴에 이제야 싹튼/조선사람의 녀 앓길 수 없고/사람대접
못받던 지난날처럼/또 말과 글을 뺏길수는 없다고//그래, 아버지 어머니
들이/무엇을 찾으려고 술한 피도 흘렸느냐/너희들을 못먹여서 가슴을
앓고/잠자리에 누덕 한 장 못덮어주어도/통일된 우리 땅에 찾아가서는/
나라의 기둥되어 원풀이하리라고//그래/전쟁의 상처도 가지지 않은 때
부터/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너희들의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셨고/우리는
떨시와 해침을 이겨내고/땀뻘 돈과 지혜를 모았다//아이들아/한시인들
품에서 뗄수 없는 너희들을/그 어떤 손아귀에 맡긴단말인가/우리 말도
모르고/조국도 모르고, 원수도 모르는/그런 너희들로 키울수는 없구나//
아이들아/거리에서 웨치는 아버지 어머니들은/오늘도 해지는줄 모를것
이니/기특한 너희들 먼저 집에 돌아가서/오늘 배운 그 공부 더 잘 익혀
두자/그래서 래일은/우리 말 우리 노래 더 우렁차게 울리자//찬바람이
세찬데도/우리 노래 씩씩히 부르며 가는/미더운 아이들아!

- 「아이들아」 전문

인용시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설립한 조선학교가 일본의 탄압에 의해 강제 폐교되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재일조선인들의 교육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인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겪고 있는 민족 차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말과 조국의 참의미를 올바르게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올곧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선학교 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그래서 재일조선인 2~3세들을 “우리 말도 모르고/조국도 모르고, 원수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어린시절 그 고생/똑똑히 배웠느냐/그리고 너희들의 이 학교를/누가 또 뺏으려 드는가도 똑똑히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너희들의 가슴에 이제야 싹튼/조선사람의 녀 갓길 수 없고/사람대접 못받던 지난날처럼/또 말과 글을 뺏길수는 없다”는 다짐을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민족교육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었다. 민족의 말과 글,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재일조선인들이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와 같은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²²⁾

3. 근원적 고향의식과 통일에 대한 열망

정화수의 시세계는 2000년 『종소리』 창간을 전후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의 시집에서 두드러졌던 이념적 경향은 『종소리』에 발표한 시들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소리』 이전의 시가 수령 형상 창조와 조국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획일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총련애국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전면화했던 반면, 『종소리』에 발표한 시를 통해서서는 민족분단의 상처에서 비롯된 근원적 고향의식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22) <총련>계 재일조선인 가운데 민족교육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시인은 남시우이다. 그는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조선대학교 학장을 역임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상일의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남시우 연구」(『한민족문화연구』 제33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5. 291-313쪽)를 참조할 것.

재일 디아스포라의 보편적 의식을 형상화 하는 데 주력했다. 즉 재일 디아스포라 3세대 이후 급격하게 해체되어 가는 민족정체성의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재일조선인의 생활에 대한 자기성찰의 세계를 열어나갔던 것이다.

우선 <총련>계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 근원적 고향의식과 조국으로의 지향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초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처가 재일조선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으로, 태어난 곳으로의 고향과 이념적 지향으로서의 조국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분단 현실의 모순과 상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쭉은 쭉국이요/냉이는 냉이찌개//안해가 량팔 걷고/숨씨를 부릴 때/
나는 전화 걸며/이웃들을 부른다오//해마다 봄이 오면/강가에 가서/안해와 더불어 캐오는/고향향기/맛보자고//야들야들 쭉들이/키돋움하며 기다린다오/오복소복 냉이들이/무더기지어 기다린다오//캐고 또 캐면/무거운 짐이지만/고향산천 다/결머지고온다오/저녁무렵 한가득 둘러앉으면/맥주요 막걸리요/이야기도 푸짐해서/가슴속도 한가득//언제나 문네/고향에서 이런 맛 볼 때는/그 언제인가

- 「쭉은 쭉국이요」 전문(『종소리』 창간호, 2000. 1.)²³⁾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민족과 국가는 개인의 의식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식민지 망국민으로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일본에 남았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일본인 되기를 강요받았던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민족과 국가는 비록 관념적인 실체로 남아 있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념이요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 민속, 풍물, 자연, 노래, 놀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23) 이하 인용시는 모두 『종소리』에 수록된 것이므로, 출전을 밝히지 않고 호수와 연도만 밝히기로 함.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고향 마을의 꽃들과 풀들, 토속적인 음식들²⁴⁾, 지역의 특산물 등을 주요 제재로 민족공동체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상한 작품이 두드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²⁵⁾ 인용시 역시 “해마다 봄이 오면/강가에 가서/안해와 더불어 캐 오는/고향향기”, 즉 “쑥”과 “냉이”를 매개로 고향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보자는 소박한 바람을 담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박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제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고향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을 치유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고향의 정겨운 음식을 제재로 제일조선인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는 민족정서를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민족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공유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려는 디아스포라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쑥국”과 “냉이찌개”를 함께 먹으며 “고향에서 이런 맛 볼 때는/그 언제인가”를 묻고 또 묻는 제일조선인들의 모습에서, 국가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우리 민족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통일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련>계 제일조선인들에게 근원적 고향의식은 분단현

24) 북한의 비평가 류만은, “민족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을 노래하는 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류만,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중소리』 - 시잡지 『중소리』를 읽고, 『중소리』 제27호, 2006년 여름호, 50쪽.

25) 『중소리』에 발표된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로는, 고향의 정경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을 제재로 한 「들장미」(김두권, 1호), 「진달래꽃」(김두권, 9호), 「나리꽃」(김두권, 14호), 「단감나무」(정화수, 17호), 고향의 정겨운 음식을 제재로 한 「쑥은 쑥국이요」(정화수, 1호), 「호박찌개」(정화흠, 8호), 애호박(정화흠, 16호), 「상추」(정화수, 18호), 「열무김치」(김학렬, 19호), 「찰강냉이」(정구일, 20호), 「안동소주」(김학렬, 21호), 「호박전」(정화흠, 28호), 「감자부침이」(정구일, 31호) 등이 있다. 하상일, 「제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중소리』를 중심으로, 앞의 책, 183-184쪽 참조.

실의 모순을 넘어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어머니/이제야 고향을 방문할수 있다니/오히려 가슴이 미여집니다//
온갖 고문과 수모를 당하면서도/남편과 아들의 행처를 숨기며/곳곳이
살아 오신 우리 어머니//고향의 그 바다가인가요/흰 저고리치마 단정히
입으시고/큰 돌 우에 앉아 멀리를 보시는 모습//내 오늘도 조용히 우러
러 보며/고개 숙여 사죄합니다/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시라고요//인편으
로 이따금 당부도 하셨지요/살아 생전에 단 한번이라도/만나 볼수는 없
겠는가고//그 때마다 그랬습니다/겨레가 다 만날 때면 만나리라고/그것
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너무나 늦었습니다/반나절이 못되어 가닿을
고향을/반세기나 넘어서야 가게 되다니//참으로 억울합니다/어머니 안
계시는 고향을 이제야 가다니요/나에게 고향은 어머니 품이 아닌가요//
풀이 성성할 어머니 묘 앞에/머리 꼭 숙이며 엎어 져야 하겠습니까/가슴
을 떨고 떨기만 해야 하겠습니까//어머니, 어머니//내 갔을 그럴 때만이
라도 잠시/되살아 주실수는 없겠습니까, 어머니

- 「이제야 고향을」(7호, 2001. 7.)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고향인 정화수 시인은 제일조선인으로 살면서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의 문예정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간 <총련> 산하 <문예동> 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으로 인해 남한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누구보다도 어려웠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 방문은 “살아 생전에 단 한번이라도/만나 볼수는 없겠는가”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마저 거역할 수밖에 없는 민족 분단의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다. “겨레가 다 만날 때면 만나리라”고 너무도 담담하게 말하는 자식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민족 분단의 모순을 넘어서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적 현실인식이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조국과 고향의 단절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감으로써 “반나절이 못되어 가닿을 고향을/반세기나 넘어서야 가게 되”는 “참으로 억울”한 현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통일을 향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

소리』에 발표된 정화수의 시는 대립과 갈등으로 굴곡진 이념의 시대를 뒤로 하고 남과 북이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의 세계를 지향했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은 2000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변화된 지형을 이해하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화수의 시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흐름과 변화를 문학사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해방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정화수의 시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종소리』에 발표된 정화수의 시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을 노래하든, 고향을 노래하든, 통일을 노래하든, 경직된 이념과 구호로 사상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던 <문예동>의 창작방법론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금 북한문학 내부에서도 ““친일반동작가’일지라도 작품본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각도에서 이광수의 「개척자」라든지 최남선의 새 형식의 시작품의 긍정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종래 부르주아 문학으로서 배제되었던 작가”들도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수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²⁶⁾ 따라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역시 <민단>과 <총련>,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남북한의 이념적 모순과 대립을 중재하

26)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김학렬, 「조선문학 평가에서의 변화」, 『종소리』 제17호, 2003년 겨울호, 32-40쪽 참조.

고 남북한의 문학을 통합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 있어서 <총련>의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연구 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촉구한다. 시 작품의 질적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금까지 지켜온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신념에 대해서만큼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말로 창작을 하는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 대부분이 현재 60세를 훨씬 넘긴 노년층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민족의식과 주체의식이 재일 3~4세대들에게 이어지지 못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사실 이들 이후의 문학 활동을 두고 과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훨씬 많다. 하지만 현재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지난 역사의 의미까지 지금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재일’의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결코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민족과 이데올로기, 언어와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후손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이념적 경직성과 언어미학의 수준에서 함량미달의 작품이 많다고 하더라도,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시문학 활동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대표적 양상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화수,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 북한; 문예출판사, 1980.
『종소리』 1호~44호, 일본; 종소리시인회, 2001. 1~2010 가을.

2. 낱글, 논문, 단행본

- 「진실한 재일동포상의 창조를 위하여 - <겨레문학>을 내면서 -」, 『겨레문학』 창간호, 2000. 5.
- 「해방 5년, 동포신문 사정 - ⑤ 170종의 재일동포신문」, 『조선신보』 2006년 4월 11일.
- 김응교, 「재일조선인 조선어 시전문지 <종소리>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2. 237-276쪽.
- 김학렬 외(좌담), 「문예동이 걸어온 자랑스런 40년」, 『문학예술』 109호, 문예동중앙상임위원회, 1999. 6. 29. 22-34쪽.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 시문학 연구』,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 오성호, 『북한시의 사적 전개과정』, 경진, 2010.
-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 창비, 2009.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민족교육위원회, 신준수이봉숙 옮김,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 제이앤씨, 2008.
-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박성태서태순 역, 『재일한국인백년

- 사』, 제이앤씨, 2010.
- 하상일,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 -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4. 171-192쪽.
- 하상일,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4. 161-203쪽.
-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허남기 연구」, 『비평문학』 3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12. 369-391쪽.
-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남시우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33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5. 291-313쪽.
-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 ~ 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2, 79-103쪽.
- 홍용희,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시의 특성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4. 479-507쪽.

<Abstract>

A Study on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 The Focusing Jeong Hwa-su's poetry

Ha, Sang-Il

This study looked into the poet Jeong Hwa-su, the Korean-Japanese Diaspora. After liberatio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started from Huh nam-gi, Kang Sun, and Nam si-woo, and it was transferred to Kim si-jong, Kim Yun, Jung hwa-hum, Kim hak-ryeol, and Jung hwa-su.

Jeong Hwa-su's poetry world was based on the yearning toward his mother country, our fundamental emotion. Jeong Hwa-su's poetry showed strong politics including the pro-North Korea and anti-South Korea as a Chongryun member while dealing with ordeals and pains Koreans went through. His poetry announced right after making Chongryun showed socialistic realism while expressing straightly admiration for North Korea, and sneers and criticism for North Korean politics. In addition, he announced the purposeful poetry of propaganda supporting actively Chongryun's patriotic projects. His poetry shows the point of confusion that seems hard to be considered as the one person's poetry world because of a conspicuous gap between pre-and post- Chongryun of 1955. This resulted from the inner conflict and hurt that he could not but go through as the Korean who experienced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His poetry definitely became the most

significant guide to overall understand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Korean-Japanese Diaspora after liberation.

After liberatio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was based o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ideology of the Korean-Japanese who internalized their hurt of colonization and division. Therefore, most of works tried to stand for realistic nature directly showing political social issues, instead of focusing on deepening the lyricism to condense personal emotion to the indentified world. As post-nationalism, post-society discourse is currently appearing as the important issue beyond the boundary of race and nation, the perspective of 'Diaspora' and problem awarenes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the effective discours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rapidly changing world. Jeong Hwa-su's poems have an important literary meaning as the text containing such the problem awareness.

Key Words : Korean-Japanese Diaspora,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Jung hwa-su, Nam si-woo, Kang Sun, Huh nam-gi, Kim si-jong, Kim Yun, Jung hwa-hum, Kim hak-ryeol, Chongryun, historical consciousness, ideology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